혁신도시 채용 올스톱…애타는 취준생

코로나 19 확산에 나주 공공기관 채용 일정 4~6월로 연기
한전 등 13곳 2281명 채용 계획…추이따라 재연기 가능성도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나주 혁신도시 채용계획이 흔들리고 있다.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노렸던 광주·전남 취업준비생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다.

2일 한국전력 등 채용계획을 밝힌 혁신도시 13개 기관의 채용 예정 인원은 총 2281명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은 이달 잡혀있던 채용일정을 4~6월로 미뤘고, 일부 기관의 필기시험은 이미 연기된 상태다.

국내 공기업 가운데 최대 규모인 1500명 채용계획을 밝힌 한전은 3월 말 예정된 '상반기 대졸수준 공개채용' 일정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 3월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1차 서류전형·2차 필기시험(4월)→3차 직무면접·4차 종합면접(5월)→신체검사 및 신원조사(6월) 등 4개월에 걸친 채용절차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한전은 앞서 지난 달 21일 치르기로 했던 '2020년도 1차 6직급 서류전형'(사서·간호사) 필기시험은 오는 27일로 잠정 연기했다. 한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안전확보를 위해 채용 필기시험 일정을 연기했다"면서도 "이후 일정은 다시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전은 다음 달 사무·기술직무 '체험형 인턴'을 뽑을 계획도 세웠지만 사태 추이에 따라 변경될 전망이다. 4월과 8월 진행하는 '체험형 인턴' 채용규모는 1500명에 달한다.

한전 그룹사인 한전KDN은 이달 서류전형은 계획대로 진행하지만 필기시험은 4월18일에서 같은 달 25일로 잠정 연기했다. 100여 명 정도를 뽑는 한전KPS 상반기 채용은 3월 말~4월 초 예정돼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변경 여지를 뒀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달 예정된 전일제 직원 채용을 5~6월로 미뤘다. 인터넷진흥원 채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신입사원 입사는 5월로 예정돼 있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도 4월 전형 날짜를 늦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초 정규직 5명 채용을 마무리했지만 비정규직 채용은 사정에 따라 하반기로 미룬다는 계획을 세웠다. 농업 관련 공기업인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오는 9월 정규직 일반부문 채용을 진행한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올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지난해보다 3%포인트 상향한 24%로 정했다. 지난 2018년을 시작으로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은 오는 2022년까지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워갈 예정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상의 '코로나19 극복' 공동모금회에 2천만원 전달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정창선)는 2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코로나19 극복 후원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후원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의료계 종사자들과 대구 경증확진자들의 광주치료를 돕기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정창선 회장은 "추가감염에 따른 지역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속에서 예방·방역활동에 헌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지역사회가 하루빨리 안정된 일상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상의는 지난 2월 감염병 확산에 따른 화훼농가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화훼농가 살리기 캠페인에 동참하는 등 다양한 지역사회공헌을 하고 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은행, 코로나19 극복 성금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왼쪽)은 2일 여수시청과 나주시청을 잇따라 방문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성금 각 1000만원을 전달했다. 앞서 광주은행은 전남도에 마스크 3만개를 전달하고 목포시·순천시에 후원금 각 1000만원을 기탁했다. 〈광주은행 제공〉

건설업 체감경기 두달 연속 하락

경기실사지수 68.9…3.2P ↓

코로나19 여파에 건설업계 체감경기도 두 달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달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전월 대비 3.2포인트 하락하면서 68.9를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CBSI는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건설업 CBSI는 올해 공공공사 등 사회기반시설(SOC) 물량 확대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해 12월 92.6까지 올랐다.

하지만 연초 발주물량 감소에 코로나19 확산이 겹치면서 지난 1월 72.1을 기록하더니, 지난달 70선 밑으로 떨어졌다.

중소건설사와 지방에서의 타격은 더 컸다. 대형과 중소기업 지수는 각각 72.7, 73.8로 전월과 같았으나 중소기업은 1월보다 10.7포인트 떨어진 58.7로 최근 6개월 이래 가장 낮았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신보, 청년 창업가 금융지원

특례보증 지원사업 운영

광주신용보증재단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2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광주신보는 이날 광주시와 광주은행 등 7개 금융회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참여 은행은 광주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이다.

광주신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시로부터 20억원을 출연받아 200억원을 보증공급한다. 또 100% 전액보증서를 지원하며 보증료도 인하하는 등 청년창업가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청년창업 특례보증을 지원받고 싶은 소상공인은 자치구별 1개소씩 운영 중인 광주신보 영업점 또는 참여은행 영업점에서 상담을 받으면 된다.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을 받은 청년은 지난해 880명에 달했다. 4년 여 동안 광주신보 문을 두드린 청년창업자는 3886명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02.51 (+15.50)	↑ 금리 (국고채 3년)	1.13 (+0.02)
↑ 코스닥	627.66 (+16.93)	↓ 환율 (USD)	1193.70 (-20.00)

허리띠 졸라맨 아시아나

코로나19 여파 비상 경영…모든 직종 무급 휴직·급여 삭감

아시아나항공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비상경영을 선포한 데 이어 급여 반납의 범위와 비율을 높이는 등 자구안 강화책을 내놨다.

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일반직, 운항승무원, 캐빈(객실) 승무직, 정비직 등 모든 직종을 상대로 무급 휴직 10일 실시하기로 한 것을 이달 안에 집중 사용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3~5월 내에 휴직을 실시하도록 했지만 실시 기간을 이달로 집중하기로 하면서 아예 3월 급여에서 전 직원의 급여 33%를 일괄 차감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달부터 사장은 급여 100%를, 임원 50%, 조직장 30%를 각각 반납하기로 했다. 앞서 사장은 40%, 임원 30%, 조직장 20% 급여를 반납하기로 한 것보다 그 비율을 더 높였다.

아시아나항공이 지난달 비상경영을 선포한 이후에도 자구안을 강화한 것은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 금지 국가가 늘어나는 등 상황이 악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며 기존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탑승객 감소와 운항편수 급감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가별 입국 제한·금지 조치로 인한 불확실성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문화신협 동광주지점 개점

26년 연속 흑자…7번째 점포

광주문화신협(이사장 고영철)이 7번째 지점인 동광주지점을 2일 개점하고 영업에 들어갔다.

광주문화신협은 이날 동광주 홈플러스 맞은 편에 위치한 동광주 지점에서 코로나 19 영향에 따라 내외빈 초청 없이 임직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개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1993년 창립한 광주문화신협은 호남지역 최초이자, 전국 두 번째 자산 1조원을 달성했으며, 전년도 당기순이익 79억원을 기록했다.

창립 이후 26년 연속 흑자경영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경영평가 1등급의 금융기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문화신협은 이날 개점한 동광주지점을 포함해 모두 7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업무 이외에도 매년 당기순이익의 7%를 지역내 소외 계층 후원, 장학재단 운영 등 다양한 지역사회공헌활동에 사용하고 있다.

고영철 이사장은 "항상 조합원들의 신뢰와 믿음을 받는 신협이 되도록 노력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근로장려금 신청 이달 말까지 연장

국세청은 코로나 19 확산을 고려해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이던 신청기한은 31일 이달 말까지 연장된다.

국세청은 작년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98만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우편·모바일로 보낸 바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가구는 ARS (1544-9944)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기한 내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6월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기한을 넘기더라도 5월에 신청하면 9월에 받을 기회가 남아 있다.

앞서 2019년 상반기에는 155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가 발송됐고, 이 가운데 96만 가구에 총 4207억원이 지급됐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단독가구 2000만원·홑벌이 3000만원·맞벌이 3600만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